

改革意志와 狀況과의 葛藤

—春園의 新體詩 研究—

梁 汪 容

- | | |
|------------------|-------------|
| 1. 序 論 | 4. 自我와 狀況意識 |
| 2. 詩論의 斷片性과 그 限界 | 5. 結 論 |
| 3. 自由와 定型의 共存 | |

1. 序 論

요즈음 開化期文學에 관한 研究業績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現時點에서의 開化期の 起點은 開港과 더불어 설정된다는 것도 거의 一般化되어 있다. 그렇다면, 1905年以後의 統監部 時期나 1910年 8月以後의 總督部 時期까지 開化期를 연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日帝下에서도 우리 民族의 開化意志는 비록 그 樣相을 달리하였으나 계속되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外形上으로는 1910年과 더불어 日帝時代의 시작으로 보고 開化期는 막을 내렸다고 볼 수도 있다.¹⁾ 이러한 日帝時代의 시작 직전인 1908년부터 1918년까지의 韓國 詩史의 흐름은 新體詩 時期라고 구분되어지고 있다. 이 新體詩 時期의 代表的 詩人인 春園의 新體詩 16篇을 대상으로 作品의 形態的 內容의 特性을 살펴 春園 新體詩의 詩史的 位置를 밝혀보기로 한다.

1) 趙東一：開化期 歌辭에 나타난 開化・敎國思想，東西文化 4輯(啓明大學，東西文化研究所，1970) p.152

開化期の文學作品에 비해 近代文學의 始作이라는 面에서는 新體詩 乃至 新小説의 位置가 더욱 뚜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量이나 質의 面에서 新體詩 研究가 開化期の 文學作品 研究에 비해 앞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現在까지의 실정이다. 특히 新體詩만을 대상으로 한 研究가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을 한 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의 現實은 부끄러운 일인 것도 같다. 筆者는 이미 몇년 前 六堂詩에 대해 言及한 두 편의 글을 발표하면서 新體詩에 대한 概念 乃至 詩史의 特性을 밝힌 바 있다.²⁾ 이러한 新體詩에 대한 研究는 開化期の 文學과 3.1 運動 以後의 文學 사이의 連繫의 研究이며 나아가서는 古代文學의 傳統的 要素들이 近代文學 以後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新體詩 研究는 六堂과 春園 2人의 作品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作品도 발굴되고 研究되어 新體詩壇의 形成이 詩史上의 중요한 일인데 이미 이러한 점을 착안한 다른 이의 言及도 있다.³⁾

春園의 傳記的 立場에서 보아도 1908년부터 1918년까지는 그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時期라고 할 수 있다.⁴⁾ 年齡의 由로 보아 17세로부터 27세까지인 11年間 그는 2次에 걸친 日本 留學을 다녀왔고, 五山學校에서 中學 5年을 졸업한 실력으로 敎편을 잡았으며, 첫번째 結婚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의 平生의 伴侶자인 許英肅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이 時期이다. 그리고, 上海의 獨立투사들과도 교제하고 그 때문에 美國行을 결심하여 비록 좌절되지만 그 過程에 생애 最長의 旅行을 中, 日, 滿洲, 러시아 等地로 하게 되어 作品의 背景이 되는 外國風物을 미리 익히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톨스토이에 심취하기도 하며, 1918年 12月에는 다시 渡日하여 1919年 2月

2) ①筆者: 六堂詩의 名稱과 Genre 〈六堂의 詩 研究 ①〉(慶北大學校 師範大學 국어교육연구 ⑥輯 1974) pp. 59~82

②筆者: 自然을 통한 民族意識의 形象化 〈六堂의 詩研究 ②〉(慶北大學校 師範大學 국어교육연구 ⑦輯, 1975) pp. 115~131

3) ①金澤東: 韓國近代詩研究(Ⅰ) (서울, 一潮閣, 1974) 가운데 序說(pp. 1~14)과 素月 崔承九論(pp. 15~46)

②金澤東: 小星 玄相允論 (語文學 27, 1972) pp. 87~102

4) 李光洙 全集 別卷 春園年譜 참조 (서울, 三中堂, 1971)

8日 敵地 日本에서 3. 1 運動의 도화선이 된 朝鮮青年獨立宣言의 준비작업으로 朝鮮青年獨立團을 조직하기도 한다. 이러한 外形의인 事件과 더불어 그의 改革的인 論說들이 新聞과 雜誌에 發表되어 그는 改革主義者로서 비난과 성원을 한 몸에 받게 된다.

春園의 作品은 2, 3차례 걸쳐 정리된 그의 全集에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1971년에 발행된 것이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⁵⁾ 이것을 텍스트로 하여 처음 수록된 雜誌나 新聞의 것을 參考하면서 論述하기로 한다. 대상 作品은 이미 앞에서 言及한 16篇의 新體詩와 이 時期의 文學論 中 詩에 대한 春園의 見解를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인데 가장 主된 分析의 대상은 新體詩 16篇이며 文學論은 副次的인 것이다.

2. 詩論의 斷片性和 그 限界

春園의 新體詩 時期에 쓴 論說은 그의 全集에 의하면 22篇인데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수록되지 않은 2篇을 포함시키면 24篇이다. 이 중 文學理論 乃至 批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4편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社會批評으로 그 自身の 改革的인 家族觀 乃至 結婚觀을 피력한 것들이다. 그리고, 4편도 文學概論의인 글이 2篇이며 나머지는 國漢文混用에 관한 言及이고 또 다른 하나는 懸賞小說 選後評格인 글이다.⁶⁾ 따라서 詩論에 해당되는 별도의 言及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新體詩時期 以後에도 계속되는데 단지 文學概論의인 言及에서 그의 詩論을 찾아낼 수밖에 없

5) 1971年판(서울, 三中堂) 全集에 빠진 作品으로는 金允植 敎수의 「初創期 文學論과 批評의 樣相」(近代韓國文學研究, 서울, 一志社, 1973, pp. 61~111)에서 밝힌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1908, 太極學報 21號)라는 論說과 筆者가 조사한 學之光 5호(1915. 5. 2刊) pp. 9~11에 수록된 「공화국의 謫망」이라는 論說이 있다.

6) ① 國文과 漢文의 過渡時代(1908, 太極學報)
 ② 文學의 價値(1910. 3, 大韓興學報)
 ③ 文學이란 何오(1915. 11. 10~23, 每日申報)
 ④ 懸賞小說考選餘言(1918. 3, 青春)

다. 물론 이 程度의 글도 六堂에 비하면 둘 다 1910年代의 詩人이라는 입장에서 理論的 背景이 있는 셈인데 이것은 中學과 大學 在學中 얻어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그의 생애에 대한 最近에 얻어진 資料에 의하면 中學과 大學의 성적표가 공개되고 있는데, 修學 科目 가운데 本格的인 文學理論 과목은 많지 않으나, 外國語講讀 성적이 뛰어난 편이다.⁷⁾ 이와 같이 그는 本格的인 文學論을 수강하지 않고 있지만 西歐志向的인 理論을 수용한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部分은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급일, 소위 文學이다 함은 西洋人이 使用하는 文學이라는 語義를 취한 것이니 西洋의 Literature或은 literature라는 語를 文學이라는 語로 翻譯하였다 함이 適當하다.⁸⁾

그러나, 春園의 初期의 西歐志向的인 文學論은 많은 限界性을 가지고 있다.

㉠ 원래 文學은 다만 情的 滿足, 即 遊戲로 생겨났음이며 또 多年間 如此히 알아 왔으나 漸漸 此가 進步發展함에 及하여는 理性이 添加하여 吾人의 思想과 理想을 支配하는 主權者가 되며 人生問題 解決의 擔任者가 된치라.

㉡ 文學은 실로 學이 아니니, 大概 學이라 하면 某事, 或은 某物을 對象으로 하여 某事物의 構造・性質・起源・發展을 研究하는 것이므로, 文學은 某事物을 研究함이 아니라 感覺함이니, 고로 文學者라 하면 人에게 某事物에 關한 知識을 教하는 者가 아니요, 人으로 하여금 美感和 快感을 發케 할 만한 書籍을 作하는 人이니, 科學이 人의 知를 滿足케 하는 學問이라 하면 文學은 人의 情을 滿足케 하는 書籍이니라. (㉠과 ㉡의 傍點 모두 筆者)

윗 글 ㉠과 ㉡은 新體詩 時期에 발표한 文學論 中 主로 文學의 効用에 대해 言及한 部分이다.⁹⁾ ㉠은 春園이 一次 東京留學時節에 發表한 글인데

7) 노양환: 東京留學時代의 李光洙(文學思想, 創刊號 1972. 10) pp. 365~375

8) 李光洙: 文學이란 何오(1916. 11. 10~23, 每日申報) (全集①) p. 547

9) ㉠ 李光洙: 文學의 價値(1910. 3, 大韓興學報 第11號) (全集①) p. 546

㉡ 李光洙: 文學이란 何오(1916. 11. 10~23 每日申報) (全集①) p. 548

앞 부분에서는 비록 ‘情의 滿足’을 내세우고 있으나, 톨스토이의 영향인 功利主義의인 文學 혹은 啓蒙主義의 立場을 發展된 文學이라 보고 있다.¹⁰⁾ ㉔은 ㉑보다 6年 뒤인 早稻田大學 在學中 發表한 言及인데, ㉑보다 文學의 効用이 약간 수정되고 있다. 이 ㉔에 대한 모순점과 限界點은 이미 다른 이의 言及에서도 지적되고 있지만 ㉔에서는 ㉑에서 副次的이었던 美感이나 快感을 거의 유일한 効用으로 내 세우고 있는 셈이다. 거의 唯美主義에 흐른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早稻田大學 學窓에서 受容한 外國文學의 영향이라고 보아진다. ㉔의 全般的인 言及에서 筆者가 引用한 部分 말고도 다른 곳을 군데군데 引用하여 唯美主義뿐만 아니라 寫實主義, 功利主義, 浪漫主義 등이 뒤섞여 있다는 다른 이의 상당히 妥當한 主張도 있다.¹¹⁾ 그러나, 이러한 혼미기 이후에 톨스토이의 영향으로 啓蒙主義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같은 이의 主張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㉔을 쓰기 6년전 그는 이미 톨스토이에 심취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16年의 西歐志向性의 혼란은 大學時節의 西歐文藝思潮나 日本의 自然主義文學論¹²⁾의 影響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그의 文學作品에서의 情에의 경도는 이런 外形的인 原因의 밑바닥에 早失父母하고 孤兒로 자란 어린 時節에 形成된 孤獨하고 感情志向의인 性格과 Sister Complex가 作用하고 있는 점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 말하자면, 그의 文學觀은 이미 初期부터 啓蒙主義와 情育 중시의 모순적인 兩面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은 限界性을 가지고 있는 文學論 中 그의 詩學的 배려 즉 詩論이 어떻게 展開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文學의 價値」(1910. 3. 大韓興學報 第11號)에서는 詩에 대한 言及은 찾을 수가

10) 春園年譜(全集 別卷)에 의하면 1910年 11月 五山學校 재직 중 톨스토이 서거 소식을 듣고 학생들과 더불어 그 追悼會를 여는데, 이것이 교회의 勸告를 사 五山學校를 그만두게 되는 原因의 하나가 된다.

11) 李善榮：李光洙論(國文學 論文選 ㉔, 韓國現代小說研究, 서울, 民衆書館, 1977) pp. 151~175 중 p. 168

12) 金允植：初創期的 文學論과 批評의 樣相(近代韓國文學研究, 서울, 一志社, 1973) p. 67

없다. 다만 '詩歌'라는 名稱을 小說과 함께 使用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詩와 歌와의 분리된 概念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文學이란 何오」(1916. 11. 每日申報)는 1910年代의 文學理論으로서는 概論의인 性格을 유감없이 피력하는데, 우선 量的으로 보아 단락이 「新舊意義의 相異」에서 부터 「文學과 文學者」까지 10개나 된다. 그 중 「文學의 種類」라는 項目에서 詩에 대해 약간 言及하고 있다. 이 部分에서 春園의 Genre意識을 엿 볼 수 있는 셈이다. 물론 그의 Genre意識은 많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긴 하나 그의 言及을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¹³⁾

{ 散文文學——論文, 小說, 劇(散文劇, 詩劇), 散文詩
韻文文學——詩

'詩歌'라는 用語에서 '詩'라는 用語로 바뀐 것은 Genre 意識의 변천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批評文'이라는 用語를 使用하면서도 '論文'을 내세운 점(春園이 '論文'이라한 것도 說明하는 部分을 조금만 검토해도 文學에 관한 論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과 '詩'라는 Genre의 下位概念인 散文詩가 散文文學에 들어 있는 점과 '劇'이라는 概念을 '戲曲'대신에 등장시킨 점 등은 그의 限界點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詩에 대한 言及은 다음과 같다.

「詩」散文을 '읽는 것'이다 하던 詩는 「 읊는 것」이라 할지니, 그 內容으로 觀하건대, 散文은 人生의 一方向 혹은 作者의 想像內의 世界를 如實하게 描出하여 일체의 判斷 즉 美・醜・快・不快의 判斷을 一히 讀者의 意思에 任하는 것이로되 詩는 作者가 人生의 一方面 又は 自己의 想像內의 世界중에 最히 興味有한 者를 選出하여 音律 좋은 言語로 此를 描出하여 讀者로 하여금 咨嗟咏嘆케 하는 것이요, 形式으로 論하건대 一, 韻을 押할 것 二, 平을 排列할 것이니, 此는 실로 詩人이 感을 最히 有力하게 讀者에게 傳하기 위하여 言語에 自然한 曲調가 生하게 하려는 方便이다. 韻은 漢詩나 西洋詩에 皆存하는 바이나, 日本語에는 押韻에 不便함이 多하여 或 此를 試한 者가 有하였으니 皆失敗에 歸하였나니, 朝鮮語도 文法 構造가 此와 似하며 押韻에 不便이 有한지다. 대개 漢文이나 西洋文은 主語와 客

語를 倒置하는 便이 有하여 가령, 「좋은 사람」 「사람 좋은」을 병용하기
 可得하므로 韻이 豊富하거나와 日本文이나 朝鮮文에도 此便이 無함이라.
 然이나 從此로 大詩人이 輩出하면 朝鮮文의 新詩法이 生할것은 물론이라.
 現今도 韻押은 못하더라도 또 소위 「響의 好・不好」가 有하여 韻은 아니
 로되 韻과 効力이 想等한 響이 有하나니 此는 時調를 讀한 者의 共認하는
 바다. 韻이 無하진마는 自然히 어울리는 맛이 有함이 是다. 平仄이라 함
 은 朝鮮語에 在하여는 長短音의 交錯이니라¹⁴⁾

이상이 그가 처음으로 詩에 대해 言及한 部分의 全部다. 윗 引用은 대
 부분이 韻律論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西歐의 영향을 받은 것
 이라고 생각되는데, 西歐의 理論을 受容하면서도 朝鮮語 즉 韓國語의 弱
 點을 알고 있는 점은 正確한 見解이다. 특히 韻의 不可能性으로 그대신
 내세운 響은 Euphony와 Cacophony¹⁵⁾의 概念과 통할 수 있으며, 平仄 대
 신의 長短音의 交錯이라고 본 점도 대수롭게 보아서는 안될 見解이다. 뿐
 만 아니라, 春園의 韻律論은 1920年代부터 오늘날까지 國文學研究의 중요
 한 部門이라고 할 수 있는 韓國詩歌韻律研究¹⁶⁾의 첫 出發로 파악될 수 있
 다. 그러나, 이 韻律論의 실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新體詩의 創作過程
 은 이 글의 發表되기 前後에 걸쳐 철저한 定型詩를 發表하고 있으나 첫
 작품이나 그 다음의 4~5作品은 自由詩 쪽이다. 이 점은 다음 章에서 차
 세히 언급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의 詩論은 六堂보다는 定立되어 있으
 나 新體詩 初期부터 一貫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셈이다. 그리고, 그의
 Genre意識의 限界는 新體詩 時期보다 훨씬 뒤인 1930年代에 쓰여진 다음
 과 같은 글에서도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14) 全集① p. 552

15) C. Brooks R. P. Warren: Understanding Poetry, 3rd Edition(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pp. 552~554

16) 韓國學報 1978. 여름호 <통권 11호>에서는 ‘國文學 研究 點檢’이라는 특집
 으로 「韓國詩歌韻律研究에 대한 通視의 省察」(芮昌海)이라는 論文과 「律讀
 의 樣相」(金大幸)이라는 論文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芮昌海의 論文에 의하
 면 春園은 1928. 11. 2~7, 東亞日報 紙上에 「時調의 自然律」(全集에는 40
 권 pp. 443~449에 수록된 「時調」라는 評論 <1928. 11. 1~9, 東亞日報> 가운데
 의 小題目으로 편집되어 있음)을 발표했다고 한다.

單純한 四・四調나 七・五調의 千篇一律의 愛國詩歌에 對한 不滿으로 崔南善의 散文詩가 나오고 그 散文詩의 너무나 散文的 不滿으로 좀더 整理된 좀 더 拘束的인 新體詩가 나왔다.¹⁷⁾

이 글은 1930年代의 雜誌「三千里」에 수록된 간단한 韓國文學史 적인 글 중, 1900年代부터 이 글이 쓰여진 1930年代까지의 詩에 대한 言及 部分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1900年代의 抗日詩歌와 開化歌辭類를 愛國詩歌로 보는 점은 큰 무리가 아니나, 六堂의 詩를 新體詩로 보지 않고 散文詩로 보는 점은 문제가 있다. 특히 六堂의 作品 중 「꽃두고」라는 것을 散文詩의 典型으로 보고 있는 점에 대해서 筆者는 그 Genre意識의 限界라고 지적한 바 있다.¹⁸⁾ 그리고, 1920年代의 金億이나 朱耀翰 等の 作品을 新體詩라고 하는 點도 마찬가지로 限界點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그의 詩論은 斷片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或者는 그의 一分野에 定着되지 않은 점은 그의 文豪的 기질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¹⁹⁾ 限界性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3. 自由와 定型의 共存

그의 新體詩 時期의 作品 16篇의 形態의 特徵을 파악하기 위해 圖表化 하던 다음과 같다.

발표 순위	발표 년월일	발표지면	題 目	전집 권수	수록 page	形態上의 特徵
1	1910. 1	大韓興學報 제 9호	獄中豪傑	①p. 573	4.4調의 歌辭體, 行區分없으나 聯은 ①②③으로 區分	
2	1910. 3	少年3年3卷	우리英雄	⑨p. 591	自由詩, 聯區分없음	

17) 李光洙: 朝鮮의 文學(1933. 3 三千里, 全集 ⑩) p. 465

18) 筆者: 六堂詩의 名稱과 Genre <六堂의 詩 研究①>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國語교육연구 ⑥, 1974) pp. 75~76

19)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서울, 人間社, 1968.) p. 265

3	1910.6	少年3年6卷	곰(熊)	㉑p. 467	自由詩, 聯區分 있으나 各 聯의 行數 일정하지 않음
4	1913.9	새 별	말 듣거라	㉑p. 468	不完全한 自由詩, 4步格 4行씩 聯단위 반복
5	1914.12	青春 3號	새 아이	㉑p. 468	3.3.5調 4步格, 3行씩 聯區分
6	1915.1	青春 4號	님나신 날	㉑p. 469	4.4 혹은 3.4調 4步格, 5行씩 聯區分
7	1915.3	青春 6號	沈默의 美	㉑p. 584	自由詩, 聯區分없음
8	"	"	한 그믐	㉑p. 468	4.4調 4步格, 聯區分 脚韻試圖
9	"	"	내 소원	㉑p. 469	"
10	"	"	生活難	㉑p. 469	"
11	1917.5	青春 7號	벗	㉑p. 469	"
12	1917.6	" 8號	양꼬자	㉑p. 469	"
13	1917.6	"	青春	㉑p. 469	"
14	"	"	窮한선비	㉑p. 470	3.4 혹은 4.4調 4步格, 3行씩 聯區分, 時調와 통합
15	1917.12	學之光14號	極 熊 行	㉑p. 470	불완전한 4.3調, 行과 聯區分은 自由 로움
16	1918.9	女子界	어머니무릎	㉑p. 474	自由詩, 行과 聯區分 自由로움

이미 그의 詩論에서는 自由詩 乃至 改革的인 詩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16篇의 形態上的 특징 즉 音數律의 有無와 音步格, 行과 聯의 區分 등을 보아서도 形態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 왜냐하면, 六堂이 「海에게서 少年에게」라는 비록 聯 단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지만 音數律이나 音步格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作品을 「少年」誌의 創刊號 卷頭詩로 발표하면서 같은 곳에 「가을 뜻」이라는

8(4.4).5調 4步格의 定型詩를 발표하고, 同誌의 2號에는 卷頭詩마저 「少年大韓」이라는 7(3.4).5調의 定型詩로 돌아간 것처럼 春園도 역시 「우리英雄」이나 「곰(熊)」과 같은 自由詩를 쓰고 난 뒤에 定型詩로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新體詩에서의 自由詩 意識은 六堂이나 春園은 서로 五十步百步인 셈이다. 그러나, 春園의 形態的 特性은 六堂처럼 복잡하고 다양하지는 않다. 물론 六堂의 61편의 作品에 비해 16편이라는 量的인 面에서 훨씬 떨어지는 점도 있으나 六堂의 16 type으로 세분화 하여 다시 ㉠ 3.4 혹은 4.4調의 傳統的 律調 ㉡ 7.5 혹은 8.5調를 중심으로 한 日本의 影響 ㉢ 自由詩 志向等으로 3分化하여 통계처리 하던 各各 9篇, 32篇, 18篇으로 分布되는데²⁰⁾ 비해 春園은 다음과 같다.

㉠ 傳統的 律調; 10篇 ㉡ 6.5調; 1篇 ㉢ 自由詩; 5篇

六堂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것은 六堂은 日本에서 영향받은 律調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六堂보다 日本에서 修學한 기간이 많은 春園의 作品에 7.5調의 영향을 받은 作品이 단 1편이라는 점은 비교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현상이다. 그러나, 다른 觀點에서 살펴본다면 六堂의 新體詩가 唱歌 歌詞처럼 새 時代의 文物을 노래하고자 하는 의욕을 많이 간직하였기에 7.5調의 '新民謠'²¹⁾의 形式을 빌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春園의 發表順位 ㉤인 「새 아이」도 새 文物에 대한 기대 乃至 關心을 나타낸 作品으로 보아진다. 그 외에는 새 文物의 意慾은 新體詩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春園의 改革意識은 詩로서 傳達하는 것보다 論說로써 진하는 것이 효과있다는 생각에서 散文으로 발표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春園의 詩 Genre 選擇意圖는 新體詩 時期보다 훨씬 뒤에 쓰여진 다음과 같은 글에서 밝혀낼 수 있다.

나는 스스로 詩人의 素質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지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노래들은 發表를 目的으로 하고 쓴 것은 얼마 아니 되거니와 그것은 이 속에는 하나도 담지 아니하였읍니다²²⁾

20) 筆者: op cit pp. 70~71.

21) 金大幸: 民謠考, 韓國詩歌構造研究 (서울, 三英社, 1976) pp. 59~73

22) 李光洙: 「詩歌集」을 내며(1939. 6, 博文. 8집) (全集 ㉠) p. 527

이상과 같이 그는 自己의 主張이나 思想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의도에서 詩 Genre를 선택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形態面에서 주목해 볼만한 作品에 대해 言及하기로 한다.

우선 그의 處女作「獄中豪傑」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作品에 대해서는 몇년 前 筆者가 言及한 論文에서 주목한 바 있다.²³⁾

可憐한 사, 저 豪傑아, 살고, 죽은 저 豪傑아! 나는 새며, 뛰는 짐승,
움직이는, 온갖 물건, 黃金 같은, 네 눈빛과 霹靂같은 네 소리에 놀래어서
喪魂하며, 두려워서 史魂러니, 오늘날에 너의 景狀, 可憐코도 서릴시고,
山 넘고, 골 뛰던 그 氣概는 지금 어디!

—「獄中豪傑」(3)의 첫 부분—

위 引用한 부분으로 보아 거의 歌辭에 가깝고, ‘부영이’가 등장하는 점으로 보아 擬人體 小說과도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이 作品을 詩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Genre 설정에 혼란은 있으나, 이미 筆者는 春園 自身の 日記에서 言及한대로 詩라고 설정한 바 있다.²⁴⁾ 이 作品은 오히려 內容面에서 하필이면 공간적 배경이 조롱 속에 갇힌 부영이가 되었는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全集에서도 발표 순위 ⑦「沈默의 美」와 같이 詩歌集 속에 편집되지 못하고 ①권의 ‘雜纂’項目에 수록되어 있다. ‘雜纂’이라는 Genre는 편집자의 투철한 Genre意識에 의해 設定된 것은 아닌것 같다. 우선 索引 속에서는 詩라고 해놓은 점이라든지 ‘雜纂’이라는 것 자체의 文學 Genre名이 될 수 없는 점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雜纂’이라는 Genre名이 「獄中豪傑」이 수록된 「大韓興學報」에 있는 項目인가는 筆者의 資料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發表順位 ⑨「極熊行」이 發表時에 ‘雜纂’이라고 「學之光」14號 目次에 設定되어 있다. 同作品은 「消息」「編輯餘言」「訂誤欄」과 함께 雜纂으로 묶어져 있으나 同作品을 제외한 다른 것을 볼때 文學 Genre名은 아닌것 같다. 단지 「極熊行」이 315行이나 되는 長詩이기에 문

23) 筆者: 春園의 詩 研究 (國語國文學 62・63 合併誌, 서울, 국어국문학회, 1973) pp. 201~220.

24) Ibid p. 205,

제가 있으나, 「學之光」 14號의 편집위원이 당시의 東京을 중심한 在日朝鮮留學生會의 편집부장인 崔八鎭과 春園, 崔承萬, 田榮澤 等인데, 이들의 Genre意識 역시 투철하지 못하다. '雜纂' 外에 '文藝' 欄이 있는데 이곳에는 漢詩와 「重陽歌」라는 歌辭 쪽에 가까운 作品이 수록되어 있고, 自由詩 쪽에 가까운 「極熊行」을 '雜纂' 欄으로 돌린 것은 그들의 編輯限의 限界를 노출시킨 것이라 볼 수 있고 이 멤버의 한 사람인 春園의 自由詩意識 역시 투철하지 못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말하자면, '雜纂'은 Genre名으로 내세울 수 없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리고, 이 당시의 4·4調 志向이나 漢詩 乃至 歌辭 志向性은 形態上으로 春園은 傳統志向性임을 증명할 수 있는 條件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다.

다음으로 發表順位에 따라 自由詩와 定型詩의 形態面의 特性을 살펴보기로 한다.

處女作 다음으로 春園의 新體詩 중 自由詩 傾向의 代表作이라 할 수 있는 것은 發表順位 ②인 「우리 英雄」과 ③인 「곰(熊)」이다. 이 作品들은 定型詩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自由詩이다. 「우리 英雄」은 「少年」誌 目次에 詩라는 名稱까지 기입되고 있는데, 六堂의 「海에게서 少年에게」보다 철저한 自由詩이며, 李舜臣장군을 등장시켜 春園 自身の 개인적 情緒보다 集團意識을 表出하고 있다. 말하자면, 日帝時代의 시작이자 民族의 패망을 뜻하는 韓日合邦이 있기 몇 달 前 壬辰倭亂의 英雄을 詩의 題材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背後의 觀念으로 民族意識이 깔려있다는 좋은 증거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民族意識이 過去志向이 아니고 未來志向인데 그 문제가 있는데 이 점은 다음 章에서 상세히 考究될 것이다. 「곰(熊)」은 集團意識보다는 個人的 自我가 노출되고 있으면서 自由詩라는데서 春園의 特性이 보이는 작품이다.

다음으로 發表順 ④인 「말 듣거라」와 ⑤인 「새 아이」 ⑥인 「님 나신날」은 民族意識이 具體화된 '님' 혹은 '새 아이'가 등장하고 있으나 自由詩가 아니고 定型詩 形態로 表出되고 있다. 같은 民族意識의 形象化 過程이

지만 定型性을 가진 까닭은 韓日合邦 直後 未來志向性보다 過去志向性으로 돌아간 민족의 좌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비단 春園뿐 아니라 1920年代의 民謠調志向性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인이라고 보아진다. 이러한 定型詩 志向이 극단적으로 흘러간 作品들이 發表 順位 ⑧「한 그믐」부터 ⑭「窮한 선비」까지의 7篇이다. 이 作品들은 定型詩 10篇 中 脚韻까지 시도하는 것으로 春園이 韓日合邦의 悲運을 五山學校에서 맞은 후 좌절과 비탄속에서 五山學校를 떠나 上海와 러시아와 시베리아 벌판으로 旅行한 후 歐美行까지 잠들던 後 다시 五山學校에 돌아와 白惠順과 회의적인 결혼까지한 時期인 1914年 9月부터 日本으로 二次 留學을 떠나는 1915年 9月 사이에 創作된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이 작품들은 六堂이 편집한 「青春」誌 6,7,8號에 발표한 것인데, 7,8號는 春園의 二次 留學時期 以後에 발행된 것이긴 하나 그전에 지었다고 추리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青春」誌 6號와 7號의 發行日字는 各各 1915年 3月과 1917年 5月로 2年間의 공백기가 있다. 이 공백기에 대한 說明은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創刊號부터 6號까지는 每月 定期的으로 16日에 發行되었다가 6號가 國是違反이란 理由로 停刊 當한 뒤 雪上加霜 格으로 許可取消을 當하여 事實上 廢刊狀態에 놓이게 된 바 있다. 그러다, 當路者들의 猛烈한 活動으로 2個年만인 1917年 5月 16日 續刊號가 나오게 되고 이것이 續刊되자 京鄕各地의 呼應과 歡迎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²⁵⁾

따라서 7,8號에 수록된 春園의 詩는 1915年 9月 도일하기 전에 六堂에게 넘겨졌거나 도일 前에 지어진 舊稿일 可能性은 충분히 있는 셈이다.

이 期間동안의 春園은 좌절의 연속으로 民族意識까지도 表山하지 못하고 그날 그날의 現實만 쳐다보며 窮한 선비의 신세타령 속에 있었을 것이니 春園의 생애 중 가장 절망적인 時期였다. 이때에 철저한 定型詩가 시도되었다는 점은 납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文學이란 何오」라는

25) 趙容萬：六堂崔南善(서울, 三中堂, 1964) p. 126,

批評의 실천적 행위로서의 가능성은 훨씬 적어지나 春園의 Genre 選擇은 그의 狀況意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점 역시 다음 章에서 다시 言及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그의 定型詩意識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作品에 나타났으며, 1919年 3.1運動 直前に 발표한 發表順位 ⑩「어머니 무릎」부터 철저한 自由詩로 方向을 전환하게 되며 그 대신 自由詩 속에서는 狀況意識이나 民族意識이 소멸되고 民族意識은 六堂처럼 時調 쪽으로, 혹은 1917年 1月 1일부터 시작되는「無情」등과 같은 長篇小說로 옮겨가게 된다.

4. 自我와 狀況意識

春園의 3.1運動 以前の 散文들은 民族意識과 情的自覺이라는 두 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兩面性은 이미 다른 이들의 言及에서 오래전에 지적된 적이 있다.²⁶⁾ 筆者의 見解는 이미 앞 章에서 形態面의 特性을 살피면서 간단하게 피력했지만 民族意識과 個人的 自我라는 서로 모순되는 兩面이 있다고 보고 形態面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內容面의 特性이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作品分析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6篇을 詩의 內容上の 특징 즉 時代的狀況과의 관계, 背後의 觀念有無, 情緒의 同質性 따위를 기준으로 하여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10年代의 時代的 狀況意識이 이미 설치되어 있던 統監部의 檢閱²⁷⁾을 거처도 삭제되는 事態가 생기지 않고 雜誌의 배부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Mask를 쓴 채 간접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다. 이 경우가 本章의 가장 중점적인 言及의 대상이 된다. 發表順位 ①「獄中豪傑」②「우리 英雄」③「곰(熊)」과 같이 韓日合邦以前에 발표된 것과 ④「말 듣거라」⑤「새 아이」⑥「님 나신 날」그리고 發表順位 ⑩「沈默의

26) 宋敏鎬: 春園의 初期作品考(1961.9, 現代文學, 통권 81호) pp. 236~241.

27) 李明宰: 新文學 再論 序說 — 식민지 시대 문학의 諸問題(1978.8, 韓國文學, 통권 58號) pp. 312~323.

美」⑬「極熊行」까지 포함하여 8篇의 作品이 여기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自我와 民族意識이 Mask를 쓴 채 Mask 밖의 時代的 狀況과 대결하는 作品으로 16篇 中 절반이나 차지하는 셈이다. 그리고, 春園의 경우에 등장한 Mask가 六堂의 ‘물’과 ‘불’ 등의 原素를 빌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당돌하며 靜的 Image보다는 dynamic한 Image를 使用하고 있다.

둘째, 自我와 다른 世界와의 대결이 아닌 作中話者의 感情이나 기분, 서러움 등을 직접 表出하고 있는 作品들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作品들은 앞章에서 言及했지만 철저한 音數律과 脚韻을 시도하고 있어서 自由詩 意識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作品으로는 발표 순위 ⑦「한 그름」⑧「내 소원」⑨「生活難」⑩「벗」⑪「양고자」⑫「青春」⑬「窮한 선비」等 7篇이 되는 셈이다.

세째, 作中話者와 他者와의 協力乃至和解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發表順位 ⑥「어머니 무릎」의 경우가 있다. 이 作品은 女性雜誌에 발표된 것으로 作中話者 ‘저’와 作中聽者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상태이며 어느 정도인가를 두 사람 사이의 여러 지나간 關係들을 회고해 봄으로써 形象化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新體詩 16篇 中 個人的 情緒가 感情過多 현상을 극복한 面에서 독특한 作品이며, 다른 作品들에서 발견되는 韻律 때문에 意味를 죽이는 短點까지도 극복하고 있다. 말하자면 形態의 안정감과 Tone의 차분함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作品으로 평가될만한 作品인 셈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이 作品은 新體詩 時期의 特色보다는 3.1 運動以後「創造」誌 등을 통해 활동하는 春園의 1920年代 쪽의 特色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 ① 眞珠같이 光彩있고 彗星같이 돌아가는, 햇불 같은 兩眼에는, 苦悶 안게 꺾도다. 그러나, 그 안게 속에 빛나는 光明은 숨은 勇氣, 숨은 힘 이, 中和한 번갯불! 前後左右 찢린, 남게 새긴 듯 한 가는 줄은, 獄에 매인, 저 豪傑의, 煩悶苦痛 자취로다. 自由를 자랑하던, 저 豪傑—부영이의 좁은 獄에 갇혀서, 束縛받는 生活!

㉔ 軍營에 누워자는 우리 英雄

古今에 없고 世界에 다시 없는 우리 英雄

얼굴에는 淚痕과 憤慨함과 軍心이

금을금을 하는 燭光을 내며

西便을 向하여 慟哭하던 눈물 자취

鐵石 같고 眞珠 같은 肝臟 흘러나온

뜨겁고 貴한 그 눈물 자취

이 누운가, 우리 英雄 忠武公 李舜臣

平和로운 그 呼吸에도 赤心熱情 알배 없고

뚝뚝 뛰는 그 心臟의 鼓動에도

生命 自由가 넘치는도다.

父母 兄弟 姊妹—한 피 나눈 同胞가 塗炭 魚肉에 苦痛하며

生命 自由 품은 이 땅—의 나라의 運命이 危機가 一髪이며

神聖文武하옵신 우리 皇上—우리의 큰 악비자가

烟塵을 무릅쓰시고, 龍의 눈물을 洞仙嶺 저편에 뿌리시게 되니

우리 英雄의 마음 어떠할까?

—「우리 英雄」들체 聯—

㉕ 또 호곡! 피바래는 如前하되

다시 氣力은 이미 淸盡하여

四肢가 나른해 겨우 버티어도다

숨소리만 높이 殺氣는 騰騰하니

고깃몸은 이미 調節을 잃었으니 어찌해 어찌해

심장 속에 끓는 피가 創口로 퍼붓는 듯

부릅떴든 눈도 次次 가늘어지고

목숨 없는 고깃덩이만 痙攣으로 떨리

이것이 이 英雄의 最後로다. 이것이—

그러나 저 바윗돌은 依然해(自然은 다아)

다른 動物들은—조그마한 목숨 가진 怪物들은

이것을 보고 비웃으리라 미웁다 하리라

아아, 그 조그마한 목숨이 아까워 自我를 꺾는

너희들 拙法한 動物들아 네가 도록혀 그를 웃어?

네가 비록 네 목숨을 아낀다 한들 그 몇해나 될까?

無限한 時間에 비길때에야 五十年이나 百年이나

이와 같은 목숨이 아까와 貴重한 自我를 꺾어?

自我! 自我! 이 곧 없으면 목숨(살육) 아니요 機械라.

—「곰(熊)」의 중간 부분—

㉞은 이미 앞에서도 引用한 적이 있는 新體詩 處女作이다. 이미 言及한 形態面에서 뿐만 아니라 直喩의 남용이나 感歎型終結語尾의 빈번한 등장等에서도 歌辭體의 흔적이 역력한 作品이지만, 歌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面을 가지고 있다. 開化歌辭의 直說的인 表現이 動物象徵을 통하여 迂廻하고 있으며, 그 動物象徵이 擬人體小說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순한 Allegorically가 아니며, 배후의 觀念은 미묘해서 韓民族을 삼키려는 敵地 日本에서 亡國의 悲運은 예감한 靑年의 心情이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부엉이라는 動物이 가지고 있는 一般的인 象徵의 觀念이 경쾌하거나 明朗한 것이 아닌 우울하고 감잡한 밤의 부엉이 울음소리 속에서는 절망과 공포의 觀念이 나타날 수도 있기에 民族的 狀況을 초월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새가 人間存在의 여러 類型을 풍자하고 人間條件의 여러 局面을 나타낸다는 점은 東洋이나 西洋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²⁸⁾

대체로 詩 속에 새가 등장할 경우 Tone 乃至 Attitude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說明되어 질 수 있다. 作中話者가 새를 作品 속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作中話者가 作品 밖으로 나와 철저히 觀察者의 입장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가 바로 作中話者가 되는 경우가 있다. 대체적으로 現代詩에서는 위의 세 경우 중 어느 한 경우가 일관성 있게 전개되는 것이 常例라고 볼 수 있는데, Mask를 철저히 쓰는 경우는 둘째 경우가 될 것이다.

이 作品도 분명히 Mask를 쓰고 있으나, 어느 한 경우를 선택하지 않고 자주 바뀌고 있다. 말하자면 Tone 乃至 Attitude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春園의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미숙성과 情熱의 과잉에서 온 것이지만 Tone의 강렬성과 부엉이를 죽게 만들어 처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分明하다. 이점은 六堂의 新體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引用한 部分에서도 作中話者의 時點이 철창밖에서 관찰자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마지막에 ‘束縛받는 이 生活!’이라는 부분에서 作中話者의

28) C. Brooks, R. P. Warren: Understanding Poetry, Fourth Edition (New York. Holt Rinehart Winston, 1975) pp. 341~368 'The poet look at a bird.'

위치가 철창 속으로 들어가 부영이의 입장이 된다. 그리고, 부영이의 강인한 自由 탈환의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인 ‘숨은 勇氣, 숨은 힘’ 같은 표현이나 ‘自由를 자랑하던 저 豪傑’에서 觀念이 直接的으로 노출된 것은 春園의 限界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限界는 1910年代에 自由라는 문제를 생각했다는 것 自体가 亡國을 전제하지 않아도 改革的인 思考方式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先覺者的인 思想을 4.4調라는 傳統的인 그릇에 담았다는 점이다.

㉔은 ㉑에 비해 形態面에서 改革的이다. 그러나, 作中人物이 壬辰倭亂의 英雄이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過去志向이다. 여기에 春園의 苦心한 흔적이 있다. 引用한 部分의 時間的 背景은 表面上으로는 과거이나 이것은 日帝의 檢閱을 피하기 위한 方便에 지나지 않는다. 裏面에 흐르는 時間的 背景은 1910年代 나아가서는 永遠한 現在일 것이며, 李舜臣 個人的 ‘生命自由’가 ‘生命自由 품은 이 땅—내 나라의 運命이 危機가 一髮이여’ 같은 行에서 全民族의 生命自由로 확대되면서 永遠性을 획득한다. 특히 引用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靑邱의 樂園으로부터 큰 使命을 다 할 때까지 讚揚하고 노래하리라／우리 英雄 忠武公 李舜臣’에서 春園의 意圖가 노출된다. 그러나, 이 作品 역시 限界性은 가지고 있다. 특히 詩語의 웅축되지 않은 점이나 散文的 진술은 뛰어 넘을 수 없는 19歲 少年 春園의 벽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㉔은 自我를 꺾을 수 없어 그 自我를 꺾도록 강요하는 바위와 대결해 목숨을 버리는 ‘곰’을 題材로 한 作品의 중간 부분이다. 여기에 나타난 ‘곰’ 역시 배후에 觀念을 가지고 있는데 그 觀念이 ‘부영이’와 ‘李舜臣 將軍’에 비해 선명한 편은 아니다. 곰은 自我를 가진 人間으로 보고 自我 상실은 사람다운 삶이 아니라 ‘機械’라고 보아 죽음 선택은 당연하다는 主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곰’과 對決하는 상대를 ‘바위’로 설정해 ‘그러나 저 바윗돌은 依然해 (自然은 다아)’라는 行에서 바위를 自然의 典型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결은 처음부터 결판이 난 셈이다. 바윗돌 즉 自然은 依然한 存在임을 기정사실로 설정해 놓은 것은 ‘곰’의 저

항의 限界性과 죽음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인 셈이다.

여기서 ‘自我의 상실’은 무엇을 뜻하는가가 분명하지 않다. 그가 주장하는 初期의 여러 論說에 나타나는 子女 中心的 가족제도 情育中心의 생활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獨立의 完全 喪失이란 有史 以來 처음인 民族의 狀況을 암시한 것인지는 보는 이의 見解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비약한다면, 開化 乃至 改革思想이 親日로 물리고 보수적인 立場이 民族의 正統性으로 생각되는 어쩔 수 없는 1910年代의 時代性을 內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引用하지 않은 이 詩의 끝부분 「그의 그 짧은 一生은 전혀 전혀 自由니라 / 그는 일적 自然의 法則 以外에는 自我를 꺾은 적 없느니라 / 곱아! 곱아!」에서 自我를 가졌으나 나이는 얼마되지 않은 꿈의 一生을 自由의 夢으로 보아 改革意志 乃至 進歩의인 思想만이 民族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 亡國의 悲運과 보수세력의 民族正統性 회복의지의 強化²⁹⁾ 앞에서 좌절당하는 作者 春園의 自虐하고 싶은 心情이 形象化 된 것이라고 해석하여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이상 세 편의 作品에서 春園의 改革的인 自由와 自我의 획득이 바탕이 된 改革意志가 狀況과 충돌 혹은 갈등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春園의 狀況 意識은 舊韓末부터 文化變動에 대처해 온 改革的 知識人의 姿勢로 파악될 수도 있을 것이다.³⁰⁾

그러나, 이러한 姿勢도 韓日合邦 以後에는 달라지다가 시간이 경과되면 詩의 內包는 曖昧性의 함정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 曖昧性의 함정 바로 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適志向의 ‘님’에 대한 그리움이며 이 適志向性은 이미 앞에서도 言及했지만 形態面에서도 定型性으로 돌아가고 있다.

답이 운다. 답이 운다. 그 답이 또 우노나
한 옛적 한 흰제에 우리 님 나시던 날

29) 崔昌圭: 近代韓國 政治思想史(서울, 一潮閣, 1972) pp. 153~165 ‘開港 1 世紀에 대한 政治史的 考察’

30) 오세철: 舊韓末文化變動과 持續에 대한 心理人類學的 認識(현상과 인식, 1978. 봄) pp. 67~84.

그날에 우리 님의 첫소리 들던 닭이 또 우노나

네 부네 맘껏 울어라 잘즈른 해 내어 울어

행어나 네 소리로나 님의 소리 들과져

—「님 나신 날」 첫 聯—

이 作品은 발표 순위 ④「말 듣거라」와 함께 韓日合邦 以後에 발표된 作品인데 作品 끝에다가 <陰 10. 3. 朝稿>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檀君王儉의 탄신을 기리는 作品인 것이 분명하다. 이 作品은 「말 듣거라」와 같이 님과 作中話者 그리고 自然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할 作品이다. 作中話者는 作品 밖에 있으면서 그 자신과 님과의 관계를 形象化하기 위하여 作中聽者 自然(닭, 해, 바람, 꿈)에게 自然을 부러워하는 그 자신의 態度를 이야기하고 있다. 作中話者는 닭의 울음에서 '님의 소리' 해의 얼굴에서 '님의 얼굴'을 바람의 감촉에서 '님의 입김' 꿈의 모습에서 '님의 榮光'을 발견하고자 한다. '님'은 檀君王儉이라는 특정인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것은 獨立을 喪失한 祖國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은 쉽사리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神話의 人物을 통해서만 亡國의 서러움을 달랠 程度로 春園의 改革意志는 변질되었으며 그것도 自然을 부러워 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했다. 素月の「山有花」에서 발견하는 自然觀과 통하고 있지만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는 부분과 비교할 程度의 질은 陰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나, 自然을 부러워하는 自然觀은 絶望의 단계가 심화될 때 나타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과 같이 극복의 의욕이나 意志가 없으니 自然的으로 適去志向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內容의 側面과 병행하여 定型性을 획득하게 되는 점은 이미 앞 章에서 살펴본 대로이다. 특히 Tone도 강렬함이 喪失될 정도로 그 自身은 지쳐 있었고, 日帝의 檢閱도 強化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發表順位 ⑦「沈默의 美」나 ⑩「極熊行」의 內包는 一貫성과 分明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며, 끝내는 그의 改革意志와 狀況意識은 情으로 감싸여진 長篇小說 속에서 강조되나 그것은 오히려, 日帝時代의 젊은 이들의 도피처로 愛情의 과잉상태에 빠진 主人公들만 만들어 내게 된다. 그리고, 철저한 定型詩 속에는 오직 植民地 知識人

의 자포자기적인 서러움만 表出하게 되고, 適去나 미래보다 現實에만 급급하게 되는 것이다.

5. 結 論

지금까지 살펴본 春園 新體詩의 세 側面을 다시 한번 整理해 봄으로써 春園 新體詩의 詩史的 位置와 新體詩 時期의 時代的 狀況과 詩와의 各별할 수밖에 없는 關係의 原因이 밝혀질 것이다.

① 春園의 文學論은 西歐志向의이며 톨스토이의 影響으로 啓蒙的 乃至 改革意志를 나타내고 있으나 실제 作品에서는 이러한 측면과 春園의 어린 時節의 孤獨이나 Sister Complex의 반영으로 感情的인 一面도 등장하여 이 두 측면은 서로 대립되는 입장이다.

② 春園의 詩論은 六堂보다는 定立되었으나 아직 斷片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自由詩 意識은 찾아보기 어렵고 詩論의 展開는 오히려 韻律論을 중점적으로 強調하고 있다.

③ 新體詩 初期의 自由詩 創作은 詩論의 실천적 과정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春園 自身의 改革意志 혹은 未來志向性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韓日合邦 以後의 適去志向性은 이러한 改革意志가 狀況과 충돌하여 빚어진 갈등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갈등의 심화는 民族에 대한 관심을 個人的인 體驗 乃至 서러움으로 물고 갔으며, 形態面에서도 극단적인 定型詩로 나타났다.

④ 春園의 新體詩에서는 7.5調의 影響을 입은 作品이 1篇 밖에 없어 六堂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까닭은 春園은 六堂처럼 新體詩를 통해 民衆을 직접적으로 계몽 乃至 고무시키지 않고 論說로써 社會改革의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⑤ 春園의 新體詩는 대부분이 狀況 때문에 직접적으로 表山할 수 없는 民族意識이 Mask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부엉이, 곰 등과 같은 動物이나 李舜臣 같은 歷史的 人物을 가져왔기 때문에 dynamic한 面

이 있다. 그러나, 韓日合邦 以後는 역시 六堂처럼 단순한 自然을 통하게 되고, 動物을 가져 오는 경우라도 背後의 觀念이 애매해진다.

⑥ 春園의 新體詩는 六堂의 新體詩가 건강, 광명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침울, 처절한 面이 있다. 이 점은 1910年代의 狀況意識이 六堂보다 예리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의 성장 과정의 不幸하고도 관계가 있다.

⑦ 新體詩 以後, 즉 1920年代의 世稱 民謠詩라는 Genre選擇도 狀況意識과 결부시켜 파악하면 흥미있는 見解가 될것이다.